

광양 '사회적 약자 로봇보급 사업' 선정

'스마트 토이봇' '배설케어 로봇' 보급 추진 노인 말벗·장애인 대소변 처리 기능 갖춰

광양시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한 '2018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와 수요처, 로봇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접수 받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사업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동안 시는 (재)전남테크노파크, ㈜스

튜디오코로스컬쳐, ㈜유라코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토이봇'과 '배설케어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10억 원의 사업비(국비 6, 지방비 4)가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로봇 보급 후 2021년까지 성과활용 기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된다.

'스마트 토이봇'은 손자, 손녀 모습의 친근한 봉제인형로봇으로 어르신의 생활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배설케어로봇'은 비데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처리해야 하는 대상자의 대소변을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민선 7기 미래도시 공약인 '일하면 힘이 세지는 로봇슈트 산업 육성' 공약 이행과 함께 어르신과 장기요양환자 및 중증장애인에게 로봇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

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로봇대상 시상식 및 로봇인의 밤' 시범사업 선정 기념식에 참석하는 한편 내년도 2~3월 중 요양원 및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해 대상자들에게 로봇을 보급하는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사업' 선정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에게 로봇을 보급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력의 성과이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시민 체감도 제고와 사회적 약자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치매극복 선도기관'에 고흥군 포두면사무소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2개소가 지정돼 최근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고흥 '치매극복 선도기관' 2개소 지정

보건복지부가 주관... 인식 개선·삶의 질 향상 '기대'

고흥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치매극복 선도기관'에 포두면사무소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2개소가 지정돼 최근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치매극복 선도기관'은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도로서,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들을 동참시키고자 도입됐다.

이들 기관의 전 직원은 치매 예방과 관리법·치매 인식 개선·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등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파트너로 양성된 지역 주민 483명과 협력해, 치매극복 캠페인 참여와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홍보활동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관련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며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보성, 미래 안전리더 양성위한 어린이·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보성군은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위급상황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보듬이나눔이 보성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관내 13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800여 명의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갖는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11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안전한 보행방법 3원칙(서다·보다·걷다) 체험교육과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인식 및 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된다.

이울러, 교통안전지수 향상과 교통사고 ZERO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단,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읍주운전 근절,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달린 교통법규, 처벌규정 설명 등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통 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12월까지 경로당과 마을회관 27개소에서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녹차비누 만들기 등 체험교육 과정과 자살, 감염병 예방법, 건강재조 등 각종 생활안전분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제6회 구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최근 구례실내체육관과 서시천체육공원에서 14개 농업인단체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례,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1천여명 참석

우수농업인 6명 시상... 관내 농특산물 품평회 개최

구례군은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최근 구례실내체육관과 서시천체육공원에서 14개 농업인단체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했으며,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우수농업인 6명 시상과 함께,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시루떡 및

단, 노래자랑 등 농업인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보람을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

부대행사에서는 관내 농특산물 품평회를 개최했으며 대상은 토지면 이갑순 씨가 출품한 표고버섯이 차지했다.

또한 농촌진흥사업 전시 및 홍보, 전통주·꽃차·버섯차 무료시음회,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홍보부스를 운영해 한해 노력한 결실을 홍보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행사의 장을 마련했다.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김경일 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어려운 지역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고 상호협력력을 통해 농촌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소중한 한마당이 되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구례=심근식 기자 sgeonsik@

순천, 전남도 산림행정종합평가 '대상'

산림자원육성·취명굴제거·임업후계자 등 높이 평가

전남도 주관으로 주요 산림사업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에 대한 '2018년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순천시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평가로 진행됐으며,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생태분야 등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산림사업 정책추진 노력 및 관심도, 시책사업 추진 등 지난 1년간의 실적을 평가했다.

순천시는 산림자원육성, 취명굴제거 노력,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증진, 임도, 산림병해충방제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순천시는 포상금과 함께 2019년 주요사업물량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받아 산림행정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이강진산림소독과장은 "2015년 산림행정평가 대상에 이어 민선7기 첫해인 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해 임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행정과 함께 민선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과 '산림레포츠단지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1일 전남도청에서 열리며 그 외 우수상은 화순군, 해남군, 장려상으로는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이 선정됐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기사제보 2580@jndomin.kr

Sunshine GWANGYANG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 - 광양